

무료신문 더미에서 진지한 글읽기가 가능할까?

‘머리 아픈’ 정론보다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성 기사들
독자들, 올바른 저널리즘에서 유의미한 정보·뉴스 찾아야
무가지 살포로 ‘공짜신문’ 이미지 알린 유료신문도 책임

주동환_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이른 아침, 지하철 역 앞에선 무료신문들이 경쟁적으로 배포된다. 지하철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책보다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무료신문을 읽는데, 과거 큰 신문을 넓게 펼쳐 읽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무료신문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이젠 전 세계적 추세에 접어들었다. 독자와 광고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한 신문계가 고안한 게 무료신문인데,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신문의 본질, 정체성을 모두 내버렸다. 먼저, 판매수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광고수입에만 매달리고 있다. 신문을 돈 주고 사볼 필요가 없다는 ‘공짜신문’의 이미지는, 원래 무가지 살포에 혈안이 됐던 유료신문에게 책임이 있지만, 무료신문 덕분에(?)에 단단히 굳어져버렸다.

무료신문에서 뉴스는 한낱 겉옷일 뿐이다. 자사 기자는 몇 명에 불과하고 기사 대부분은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받아 다시 줄여서 쓴다. 사실이나 칼럼은 거의 없다. 기사는 기획 내지 분석을 하기보다 ‘머리 아프지’ 않게 찝막하게 쓴다. 자연 내용의 깊이가 얕고 매우 단편적이다. 성이나 스캔들을 다룬 선정적이거나 엔터테인먼트 식의 기사가 많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민거나말거나’ 수준의 기사, 광고성 기사도 자주 등장한다. 한마디로 독자가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닦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무료신문의 이런 스타일은 마치 디지털 세대의 젊은 독자와 글읽기 문화에 편승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디지털 세대의 독자는 짧은 기사를 원한다. 사진과 그래픽의 배치 등 디자인을 중시한다. 기사 논조에서도 진보나 보수 등 이념이 우선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무료신문은 공짜인 데다가 복잡하고 불편한 공간에서도 읽기 편한 타블로이드 판형이다. 그래서 무료신문 덕분에 젊은이들이 신문을 읽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마 그런 주장은 신문의 미래에만 충실한 시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신문이 디지털 세대의 글읽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무료신문의 관심은 신문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보겠다고 하기보다는 오로지 광고수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영상문화의 급성장 속에서 글읽기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돼야만 한다. 그 중에서 신문읽기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며, 시민의식의 함양에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전설적인 텔레비전 뉴스앵커인 월터 크론카이트는 신문을 읽지 않으면 분별 있는 민주 시민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서전과 인터뷰에서 수시로 신문읽기를 강조했다. 지금 신문읽기의 차이는 세대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장년층의 대다수는 매일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런 습관은 젊은 시절에 터득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층 가운데 신문을 매일 읽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역시 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 신문 읽기를 떠난 사람은 다른 매체를 가셔도 뉴스를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무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분별 있는 글읽기 자세이다. 신문읽기의 경우도 제대로 만들어진 신문을 읽는 게 더욱 중요하다. 모름지기 신문이라면 독자를 위하여 질 좋은 기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굳이 무료신문에 걸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무료신문은 저널리즘보다는 철저히 수익 창출을 목표로 고안된 수단일 뿐이다. 무료신문은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보겠다고 글읽기 문화에 기여하겠다고거나, 기사에서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고 진실만을 추구하겠다는 저널리즘 원칙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글읽기, 신문읽기의 미래는 독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독자는 뉴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선 제대로 만들어진 신문을 읽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신문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본다는 의식을 스스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글읽기 문화의 미래를 위해선 더 늦기 전에 활자미디어를 통한 글읽기 장려 캠페인을 펼쳐야 할 것이다. **주동환**